

2012 프랑스 대선과 유럽통합

최진우

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

관전 포인트

- 두 개의 연계된 쟁점
 - 그리스 문제(재정위기 해법)
 - 독일 문제(불-독 협력 관계)

프랑스 대선 결과

- 1차: 민족전선의 약진
 - 역대 최고 득표율: 17.9%
 - 반이민정서 반영
 - 극우정당의 강세는 전 유럽적 현상
- 2차: 현직 사르코지 대통령 패배
 - 1981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이래 처음
 - 재정위기 이후 정권교체 도미노의 연장선
 - 메르코지 연합 붕괴, 유로존 불확실성 증폭

올란드의 집권과 유럽통합

- 그리스 문제, 또는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
 - 메르켈의 긴축일변도 정책에 제동
 - 긴축론과 성장론의 대결 구도 연출
 - 성장책 모색으로 논의의 축 이동

올란드의 집권과 유럽통합

The Biggest Flash Point: "Eurobond"

- 프랑스와 남유럽
no other quick way out in sight
- 독일
the rise of borrowing costs
wrong signal to market
possibility of being dragged into crisis

올란드의 집권과 유럽통합

-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모색의 이면에는

“독일문제”

독일문제?

- 유럽통합의 역사
 - 경제통합의 역사
 - 독일문제 해결 모색의 역사

독일문제?

-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의 역사
 - 1870-71 보불전쟁 프랑스 패배
 - 1914-18 1차 대전 후 베르사이유 체제
 - 1939-45 2차 대전 후 유럽통합

독일문제?

- 유럽통합은 '독일의 유럽화'가 목적
- 프랑스-독일 공동리더십에 기반
 - 그러나 프랑스가 주도적 입장
- But, 때때로 '유럽의 독일화' 가능성 대두

독일문제와 유럽통화통합

- EMS 하에서의 유럽통화질서가 그 예
 - 1992 가을, 1993 봄
- 단일통화의 수립
 - EMS 체제 하 독일의 일방적 영향력 제어
 - 독일 통일 문제를 카드로 활용

유로존 재정위기와 독일문제

-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경제의 독일화 가능성 다시 대두
- 올란드의 반격은 바로 이에 대한 대응

프랑스-독일 관계의 전개

- 유럽통합은 공동리더십에 기반
- 대체로 프랑스가 주도, 독일이 수용, 그리고 나머지의 동참(때때로 영국의 비토)
- 양국관계 좋으면 통합과정 원활, 나쁘면 위기
- 프랑스 주도권 상실 가능성 대두 때 '공석의 위기'(1965) 발생

프랑스-독일 관계의 전개

- 1970-1990년대 양국 관계 대체로 우호적
 - 데스탱-슈미트, 미테랑-콜
- 독일통일 후 변화와 적응기 도래
 - 독일의 '정상국가화'
 - EU 확대: 양국의 제도적 파워 희석

프랑스-독일 관계의 전개

- 메르켈, 사르코지는 처음에는 매우 불편
 - 사르코지의 스타일(hyper-presidency)
- 그러나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“Merkozy” 연합 구축 (not Sarkel !!!)
 - 신재정협약 체결
 - 독일로의 중심축 이동

올랑드의 반격

- “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”
 - 신재정협약 재협상
 - 유로본드 도입
 - 긴축 완화, 성장 촉진(증세, 재정 확대)

정면충돌?

- 독일은 긴축 완화 정도만 수용 가능할 듯
- 6월 프랑스 총선까지는 '말의 전쟁' 이어질 듯
- 올랑드의 반격은 상당 부분 '내수용'일 가능성
- 그러나 프랑스-독일 관계에서 독일 독주 제어

정면충돌?

- 총선 이후 올랑드의 레토릭 완화 가능성
- 독일도 프랑스를 위한 선물 고민할 것
 - 긴축 규모, 일정 완화 가능성
 - 별도의 성장협약 체결 가능성
 - 유로본드는 중장기적 해법으로 수용
 - 아울러 독일은 이미 내수 확대책 시행 중
 - ex) 임금인상, 인플레이 허용 등

유럽통합의 미래

- 양국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 원치 않음.
 - 목적의식의 공유
- 다만 방법론의 차이
 - 긴축 vs 성장

유럽통합의 미래

- 메르켈-올랑드의 리더십은 메르코지 연합보다 오히려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
 - 독일과 프랑스는 EU 내 양분된 입장을 대변
 - 양국은 대표성을 가짐
 -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면 확산이 용이할 것
 - 오히려 양국이 처음부터 같은 입장이면 타국가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

유럽통합의 미래

- 결국 프랑스 대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결 국면은
 - 무리한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
 - 독일의 독주를 제어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
 -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의 프랑스-독일 리더십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
- 다만 그리스 문제 해결은 상당 부분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는데 만일 시장이 해결 불가능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정치적 의지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불투명